

#### 책 리뷰 :

#### <아시아 기독교 역사>를 읽고

김흥수. 잊혀진 우리 이야기 아시아 기독교 역사. 총칭남도: 대장간, 2021.

<아시아 기독교 역사>는 월간지 『기독교세계』에 연재했던 글들을 보완하여 출판한 책으로, 각 국의 선교사 학자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기독교 역사를 폭 넓게 다루고 있다. 이 책은 아시아기독교사학회의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, 아시아기독교사학회의 초대 회장이자 이 책의 저자인 김흥수(2011)<sup>1</sup>는 그의 논문에서 학술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기독교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과 <아시아 기독교 역사>의 출간을 아시아기독교사학회의 성과로 밝히고 있다. 아시아기독교사학회는 2011년 아시아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유의미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.

기본적으로, <아시아 기독교 역사>는 기독교사 서술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. 저자는 기존에 서구 중심이었던 기독교 역사의 서술이 이제는 아시아 자국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, 선교 역사 서술에서 민족 교회사 서술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. 비서구 기독교 인구가 서구 기독교 인구를 넘어서고, 아시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교회가 주도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서술해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 책은 아시아 기독교의 전문 연구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.

이 책을 통해 독자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아시아 각 국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. 1) 첫 번째는 육로 선교를 통한 기독교 역사로, 여기서는 주로 동방 시리아 기독교 (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, 혹은 경교)가 다루어진다. 2) 두 번째는 해로 선교를 통한 기독교 역사로서 이는 식민주의와 연결되고, 3) 세 번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각 국가의 세계 선교이다. 위의 세 가지 틀에서 아시아 17개국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읽어볼 수 있으며, 추가적으로 사도 도마의 선교와 불교 및 이슬람의 영향 또한 확인해볼 수 있다.

뿐만 아니라,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참고문헌 목록 역시 의미 있는 자료로 보여진다. 서론 및 결론에서 아시아 기독교 전체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단행본, 학술논문,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각 장에서 아시아 각 국가의 의미있는 연구 또한 제시하고 있다.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아시아 교회의 역사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수 있으며, 풍부한 참고문헌을 통해 향후 연구의 확장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
1) 김흥수. "아시아기독교사학회 창립 10년의 회고." 基督教思想 756.- (2021): 104-115.

**담당**  
서지혜 연구원 ([jihye.acpi@gmail.com](mailto:jihye.acpi@gmail.com))

### Citation

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. (2024). "책 리뷰: 아시아 기독교 역사를 읽고." ACPI Monthly 2024년 3월호. 서울 :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